

여수시, 국내 최초 폐자원에너지화 기술 도입

하루 120t 생활쓰레기 고형연료화 생산 가스발전 원료 활용

2013년 본격 가동...온실가스 저감·전력생산 '일석이조' 효과

여수시가 생활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올해 역점시책사업(R&D)으로 678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은 하루 처리용량 120t 규모의 고형화 연료시설과 함께 80t 처리 규모의 가스발전시설을 건립한다.

환경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

폐기물성상에 적합한 한국형 실증 시스템 개발과 관련기술 확보 및 수출기반을 마련해 오는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가운데 508억원의 시설

비는 국비지원으로 나머지 170억원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11개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달 사업시행자와 협약 체결에 나서는 여수시는 2015년 하반기 실증화 시설을 설치하고 2018년부터 시설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설이 들어오면 1일 120t의 생활쓰레기에 대해 파쇄·선별·건조 등 공정을 거쳐 고형연료화로 생산, 가

스발전 시설원료로 활용해 시간당 2.6MW 전력을 생산, 연간 온실가스 1만 687t의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로써 선도적인 친환경시설 사업을 도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장성군청 로비 '열린서재' 지역민 친근한 '문화시설'

장성군이 군청 로비에 '열린서재'로 꾸민 지 1년 만에 군 대표 문화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9월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군청 현관 입구에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신간 도서와 신문, 안락한 의자 등을 비치한 바 있다. <사진>

박모(여·45)씨는 "도서관이 생겨 민원이 처리되는 동안 군청을 떠나지 않고도 기다릴 수 있게 됐다"며 "요새는 꼭 민원을 보지 않더라도 가끔씩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곤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학습만화도 상당수 있어 아동들의 놀이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후 시간이면 '책 읽기

눈에 띈다.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윤정은 주무관은 "평소에 보고 싶던 책들이 많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자주 찾고 있다"며 "특히, 의견 상 책을 쉽게 빌려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출도 가능해 여러모로 유익한 곳"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곳에는 베스트셀러와 신간도서를 포함한 책 2100여권이 주제를별로 찾기 쉽게 정리돼 있다. 1주일 기간으로 무인 대출도 가능하다.

군은 정기적으로 최신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기존 도서는 아카데미 하우스에 재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사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물놀이 아이들이 "더위는 못참아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지난 13일 담양의 대표 관광지 죽녹원 앞 영산강 문화공원 분수대를 찾은 아이들이 분수를 독차지하며 마냥 즐거워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화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절전 가정 인센티브 제공>

군, 전기사용 절약분 6개월마다 현금 지급

현재 980여가구 참여...인터넷 가입 등 권장

화순군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는 물론 각계각층이 절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를 늘리기에 나섰다.

군은 14일 "사회 전반적으로 절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절전하면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널리 알리고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가정의 전기사용 절약분에 한

해 6개월마다 포인트를 산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 시점부터 과거 2년간 매달 평균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5~10% 미만 절약은 1만원, 10% 이상 절약하면 2만원의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현재 군내에서는 980여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상태.

탄소포인트제는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 아닌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화순군청 환경과에 팩스(061-379-3620)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가정에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인센티브도 받고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 실천 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광양·구례 매실농가 '사단 법인체' 출범

회원 300여명 참가 창립총회...임원 등 선출

빛그린매실사업단이 13일 광양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인 창립은 광양시가 구례군과 광역클러스터를 구성해 빛그린매실사업단에서 신청한 2014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에서 예비사업단 1위로 선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해 이뤄졌다.

이날 창립회의에는 광양시와 구례군의 회원 300여명이 참가했으며, 경과보고, 정관심의회, 임원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단법인 초대 임원으로 광양시 서인호, 홍성리, 김순모, 김진석, 조상현, 구례군 최상욱, 김우정, 배동규, 이종현 등 9명이 선정됐다.

초대 사단법인 빛그린매실사업단 대표이사로 선임된 서인호 사업단장은 "그동안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에 참여한 많은 주주들이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우려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단법인 설립과 주주총회를 통해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사단법인 빛그린매실사업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30억원, 그리고 자부담 6억원 등 총 66억원을 투자해 매실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각종 감염 질환 차단

고흥, 방역 횡수 확대 정화조·웅덩이 등 집중

고흥군은 13일 "하절기에 방역횡수를 대폭 늘려 각종 감염 질환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하절기 일제방역 기간 군은 매달 1차례씩의 방역 횡수를 4차례로 늘렸다.

또 가축방역과 동시에 각 읍면 마을별 전 지역에서 모기, 유충 다발생 장소인 정화조, 웅덩이, 쓰레기 집하장 등에 집중적으로 방역할 예정이다.

군은 전담 군 단위 중 최고 많은 방역 예산을 확보, 방역소독 횡수를 늘리고, 515개 자율방역단을 편성해 방역 장비 및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고흥=주국기기자 gjj@

추석 앞두고 벌초·산행시 '말벌 주의보'

담양소방서, 독성 가져 인명사고 우려

담양소방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산행과 벌초 시 독성이 강한 말벌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담양소방서는 14일 "올해는 다행이 불발되어 덕분에 말벌들이 산란하는 데 지장을 받아 지난해에 비해 농가의 말벌집 제거 신고는 크게 줄었지만 말벌들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말벌은 장수말벌과 꼬마장수말벌, 말벌 등 3종류로, 대부분 땅속에 사는 데 이 중 강한 이빨과 독성을 가진 장수말벌에 쏘일 때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예년의 경우 말벌은 8월에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추석을 앞둔 8월 말과

9월을 전후해 벌초객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말벌에 쏘이면 독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예방이 최우선이다.

벌에 쏘이면 카드나 책받침 등으로 침을 뽑고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알코올이나 소주 등으로 소독한 뒤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크기가 작은 벌집도 가만 놔두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성장한다"며 "무리하게 때려다 쏘이면 과민성 쇼크에 빠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므로 119에 꼭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장' 상초월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